

수요가정에배순서

1.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2. 찬 송 가 105장 다같이

1.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 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2.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3. 기 도 가족 중에서 기도자

4. 말 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인도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 찬 송 가 146장 다같이

1.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2. 그 흥한 십자가에서 한 업슨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3.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후렴】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 받아 주 위해 힘쓰리

6. 합심기도 다같이

1.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안을 이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 집중력과 이해력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도록
2. 코로나 19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암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교우들에게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도록
3. 담임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주시고 항상 성령충만함 주시도록

7. 주기도문 다같이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까요?

이 질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회당 공동체는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 성전을 대체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이는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사도행전 2:46).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던 그들이 성전 공동체를 대체하는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모임 장소를 잃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18기도문”이란 것을 외었는데 그 중 12번째 항목에 “미님(이단,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함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지탄을 받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거 우리가 진짜 교회가 맞는가?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사도행전 2:47) 하던데, 교회가 진짜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과, ‘칭찬을 받아서 교회가 되는 것’ 사이에서 혼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혼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성전에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 사이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동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각종 규례를 준수하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히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에 대한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운동, 윤리운동, 복지, 구제, 교육운동, 타인에 대한 배려, 겸손의 태도 등등. 물론 이러한 것들은 매우 소중한 기준들입니다.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는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의롭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세운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고린도후서 10:12).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요한1서 1:8).

진짜 의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사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에베소서 2:8~9)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로움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행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타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모습들을 요구합니다.

환경, 복지, 배려, 섬김 등등.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베소서 5:1)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 됨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